

간/급/좌/담

#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교회

● 위험과 기회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를 짚어보고  
교회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지 살펴봅니다.

**5월 7일(목) 오후 7:00 - 9:00**

페이스북 라이브 [facebook.com/giyunsil](https://facebook.com/giyunsil)

유튜브 라이브 [youtube.com/giyunsil](https://youtube.com/giyunsil)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권선필 교수(목원대 행정학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이윤재 교수(송실대 경제학과)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최진봉 교수(장신대 예배설교학)

재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 패널토의 & 질의응답 사회\_ 조성돈 교회신뢰운동본부장

문의 02.794.6200 [cemk@hanmail.net](mailto:cemk@hanmail.net) 윤신일 간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긴급좌담]

## 포스트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위협과 기회

### 순서 및 목차

■ 인사말 - 조 성 돈 교수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 권 선 필 교수 (목원대 행정학과) 3

■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 이 윤 재 교수 (숭실대 경제학과) 7

■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 최 진 봉 교수 (장신대 예배설교학) 11

■ “재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 - 조 주 희 목사 (성암교회 담임, 기윤실 이사) 15

■ 질의응답 및 토의

# 감염병의 위협과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미래 대응

권선필(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사적으로 역병은 인류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한 세상과 다른 세상 사이의 통로가, 대문이 열리고 있다.  
"Historically, pandemics have forced humans to break with the past and imagine their world anew. This one is no different. It is a portal, a gateway between one world and the next."  
Arundhati Roy: 'The pandemic is a portal' Financial Times. 2020.4.3<sup>1)</sup>

## 0. 감염병의 위협

- 0.1 코로나19가 감염된 개인이나 지역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영향이 확산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0.2 감염병의 위협은 당분간 반복적으로 계속될 것을 예측되고 있다.
- 0.3 코로나19의 문제는 감염이 확산된다는 것이고, 이 감염의 확산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 0.4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은 물리적 거리, 차단방법(마스크 등), 외부환경(환기, 온도, 접촉물 등)에 따라 결정된다.
- 0.5 감염 차단을 위해 생활 방역활동이 필수적이다.
- 0.6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구강청결, 기침예절, 마스크 쓰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이 필수적이다.

## 1. 감염병과 생명보호

- 1.0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1.1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면, 감염자에게는 체온변화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나, 감염여부의 확정엔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 1.2 바이러스 검사에서 확진이 되는 경우 14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는 심각한 증세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1.3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그리고 회복을 위한 의료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1) <https://www.ft.com/content/10d8f5e8-74eb-11ea-95fe-fcd274e920ca>

## 2. 감염병에 대응

- 2.0 감염과 이로 인한 건강과 생명에의 위협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1차적 대응목표가 된다.
- 2.1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으나, 치료가 부적절할 경우 사망률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 2.2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현재 개발 중이고, 아직 검증된 백신은 없다.
- 2.4 감염에 의한 심각 증세를 겪는 경우 의료적 대응이 필요하며, 감염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격리 시설과 같은 특수 시설과 장비(감압시설, 산소호흡기, 에크모 등) 그리고 의료 인력(통상 중환자의 5배정도)을 필요로 한다.
- 2.5 실제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비율은 연령, 계층, 인종, 국가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차단

- 3.0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distancing)'와 이동제한과 격리(lockdown)이 필요하다.
- 3.1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3.2 인간 활동상 접촉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물리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거리두기(distancing)이다.
- 3.2 거리두기의 다른 형태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하는 격리(lockdown) 혹은 봉쇄가 있다.

## 4. 감염에 대한 적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 4.0 물리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사회 행동(social action)으로 나타난다.
- 4.1 사회 행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사회구조(social structure)를 반영하는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으로 나타난다.
- 4.2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수가 모이는 광장, 학교, 교회 등 집합공간에 대한 차단; 도시 내에서의 이동 제한; 광역 지역 간 이동통제; 항공이나 선박에 의한 국가간 이동차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4.3 사회적 거리두기는 행위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소 들을 반영하여 나타나게 된다.

## 5. 거리두기와 외부연계

- 5.0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는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 5.1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기간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지 범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 5.2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생활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요소에 대해 외부에서 공급받게 되고, 외부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 5.3 외부 공급에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 5.4 외부에서의 공급은 유형적 물건의 배송과 인터넷을 통한 무형적 디지털 정보로 구성된다.
- 5.5 배송은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인터넷은 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 5.6 인터넷은 전기에너지에 배송시스템은 교통수단에 의존한다.
- 5.7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활기반유지와 외부 연계는 지속되어야 한다.

- 5.8 생활기반 이외의 다양한 생활서비스의 공급은 각각의 개별적 연결망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 5.9 각 생활권에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공급망(supply chain)의 특성에 따라 거주민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다. 이때 생활권은 단일한 것이 아니다. 물, 음식, 에너지,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각 생활 요소에 따라 중층 네트워크 형태를 띌 수 있다.

## 6. 거리두기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문제

- 6.0 거리두기로 인해 거리에 의존하는 경제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 6.1 관광, 항공, 교통 등 다수 밀집으로 전염의 위험을 확산하는 산업의 쇠퇴가 불가피하다.
- 6.2 이에 비해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배송과 온라인 산업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 6.3 거리두기와 봉쇄에 따른 소비자 수요변화로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6.4 전세계 국가별로 나타나고 있는 봉쇄에 따라 지구적 공급망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
- 6.5 거리두기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소득문제로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전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 6.6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정책은 재정공급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 6.7 향후 경제변화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규모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7. 거리두기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제

- 7.0 거리두기로 인해 고립되는 개인과 사회는 심리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 7.1 고립으로 인해 개인들은 불안과 염려와 같은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다.
- 7.2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노동력이 없는 고령자, 청소년, 이민자, 장애인 등)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 7.3 노동력의 시장 가치가 불안정한 문화예술이나 인문사회 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 7.4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인구의 규모와 그 격차가 더욱 커짐에 따라 사회불안이 높아질 것이다.
- 7.5 높아진 사회불안은 폭력을 수반하는 사회혼란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8. 파국을 막기 위한 접근 방향

- 8.0 코로나19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갈등과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한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8.1 현실 변화와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대응 한계 등을 내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문제대응이 출발되어야 한다.
- 8.2 문제가 가지는 다양한 측면과 그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를 개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 8.3 문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참여를 통해 해결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 8.4 모든 논의는 사실적 근거(evidence)를 만들고 형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시작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 9. 재난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

- 9.0 코로나19는 단발적 위협이 아니라, 유사한 위협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이나 조직은 물론 사회도 재난회복력을 갖추는 것이 장기 목표가 될 것이다.
- 9.1 재난회복력은 지속가능성의 여러 조건들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의 여러조건들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필요조건 이하는 위험하고, 충분조건 이상은 불필요한 낭비가 된다. 따라서 '극대화(maximize) 추구'가 아니라 '중용(moderation)'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 9.2 중용을 추구하는 주체는 개인, 가족 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결정단위가 될 것이며 각 주체별로 생활권(living space)을 형성하고 그 생활권과 주체간의 균형적 관계를형성하여야 한다.
- 9.3 주체와 생활권 간의 상호작용은 일방적이기 보다는 생활권은 주체를 품어주고, 주체는 생활권을 돌보는 '호혜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로 이해되어야 한다.
- 9.4 재난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목표가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사회에 대한 상상을 기초해서 가능하다.
- 9.5 인간 역사를 통해 나타난 종교와 고전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바람직한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과 실현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한 교회의 역할

이윤재(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 세계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 (1) 과거의 경제위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 (과거: 금융부문 부실로 인한 위기이므로 금융부문 자금 지원으로 위기해소 가능했음), 코로나19의 경우는 감염방지를 위해 경제주체 간에 접촉 금지됨에 따라 거래 감소로 인한 실물부문 타격이 크며, 실물부문의 불황이 금융부문 전파로 전파되어 실물 및 금융 복합불황으로 나타남, 단순히 자금 지원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한국 및 세계 경제 역성장: 금년 1/4분기 한국성장률 -1.4%, 중국: -6.8%, 미국: -4.8% , 프랑스 -5.8%, 독일 -1.9%, 이탈리아 -4.7%, EU -3.8% 등.
- (2) 특정 국가가 감염자가 없다고 해결될 문제 아님, 글로벌화로 인해 촘촘히 연계된 상황 하에선 주요 교역국가 간에 감염자 없어야 함.
  - 따라서 경제적 및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제간 공조가 중요한데, 미.중간 분쟁으로 국제적 리더십 실종 상태임.
- (3) 장기화 우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되어야 불확실성 줄어 본격적인 경제활성화 가능해짐, 의료계의 예측에 의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인간에 활용될 시기를 빨라야 1년 1년 6개월로 예측하고 있음.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ILO 추정: 전세계적으로 금년 2/4분기에 코로나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가 지난 연말에 비해 10.5%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는 정규직 (48시간 기준) 3억5백만개 감소에 해당함. 금년 1/4분기에는 근로시간이 4.5%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정규직 일자리 1억3천만개에 해당됨. 시초 추정치 6.7% 근로시간 감소 (1억 9천 5백만개 일자리 감소)보다 더 심각함([www.ilo.org](http://www.ilo.org),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3<sup>rd</sup> edition참조)
- (4) 코로나19로 인하여 탈글로벌화(degloabalization) 조짐이 보이며, 탈글로벌화와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겹쳐서 나타나면 국제교역 자체가 위축될 것임.

## 2.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대책

- (1) 실물부문 특히 매출감소와 함께 대량실업이 우려됨. 당장 시급히 손써야 할 것은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실업자를 최소화하는 것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던 2~3월간에 실업자가 대폭 늘었으며 취업자도 대폭 감소추세를 보였음. 특히 청년층의 취업 급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부록-그림 1 및 2 참조).

- (2) 금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달 실업자가 2월달에 비하여 27천명이 늘었음, 같은 기간에 취업자가 22만9천명 감소되었음(전년동월대비 -195천명). 유급 혹은 무급휴직을 당한 일시휴직자들이 98만9천명 증가(전년동월대비 126만명 증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들 중 대부분이 실업자로 전락될 우려 있음 (**그림 3 참조**).
- (3) 따라서 정부도 기업의 고용유지 조건으로 기업의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고 있으나 제한적임. 제2분기에 수출감소(4월수출 -24.3% 급감) 영향으로 실업자 증가 우려 됨.
- (4) 특히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긴급조치 해줘야 함.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 → 5월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 일부 업종 매출 증가 예상.
  - 소상공인들의 주요업종인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여행 및 관광, 교육서비스 업종이 직격탄을 받고 있음. 소상공인 사업체가 318만개 이상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존 부채가 많아 신규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경영 압박이 심함.
- (5) 탈글로벌화 및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수출주도형인 한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특히 중국 중심의 글로벌밸류공급망을 재구축 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 노력이 필요함. 현재 중국수출 시장이 약 25%, 미국 시장 13%, EU시장 약10%, 특히 중국시장 의존도 줄이는 노력 필요함.
- (6)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함께 집행해야 함.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예를 들면, 디지털 뉴딜, 의료보건 등 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문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는 틈새시장도 나타나고 있음. 예: 물류산업, 한국진단키트 등을 의료, 보건산업은 한국에겐 절호의 기회로 부상하고 있음.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어 새로운 투자기회로 부상됨.
- (7) 차제에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개혁) 해야 함, 규제철폐에는 이해관계자들 간 경제적 갈등이 수반되는 데, 정부의 스마트한 중재 역할이 필요함. 해당 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규제개혁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사회적 안전망 보강 등 종합적인 조정 및 개혁이 필요함.

### 3. 한국 교회에 미치는 될 영향

- (1) 예배의 형태에 대한 태도 변화 (비대면 예배)가 예상됨. 신자들 간에 예배에 대한 개념이 바뀔 것임. 온라인 예배증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회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임.
  - “주일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54.6%,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기독교 방송 등 예배 대체 생각(12.5%) (월드뷰 2020.5월호 참조).
- (2) 교회도 양극화 우려, 시설 (온라인 시설, 보건 및 위생 시설) 격차 → 교회 간 재정 양극화 심화 및 미자립 교회 타격.
- (3) 현재의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촘촘하게 앉는 밀집된 예배당 구조에서 거리두기 예배공간으로 변경 요구가 거세 질 것임. 환기 시설 등 감염 예방투자 필요. 질병 창궐시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 정비 및 지역 보건-의료 기관과 협업체계 등 인프라 구축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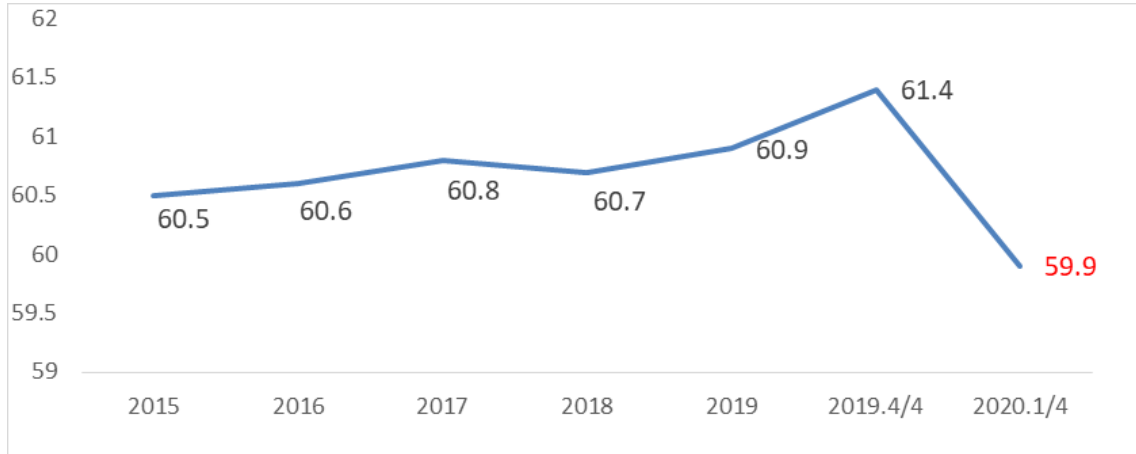
- (4) 연대성, 공동체와 함께 하는 목회가 강조될 것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약자를 포용해야 하는 목회가 요청될 것임. 최근 시대정신을 반영한 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이 화두이며, 경제/경영 패러다임도 주주중심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이해관계자중심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으로 바뀌고 있음.

#### 4.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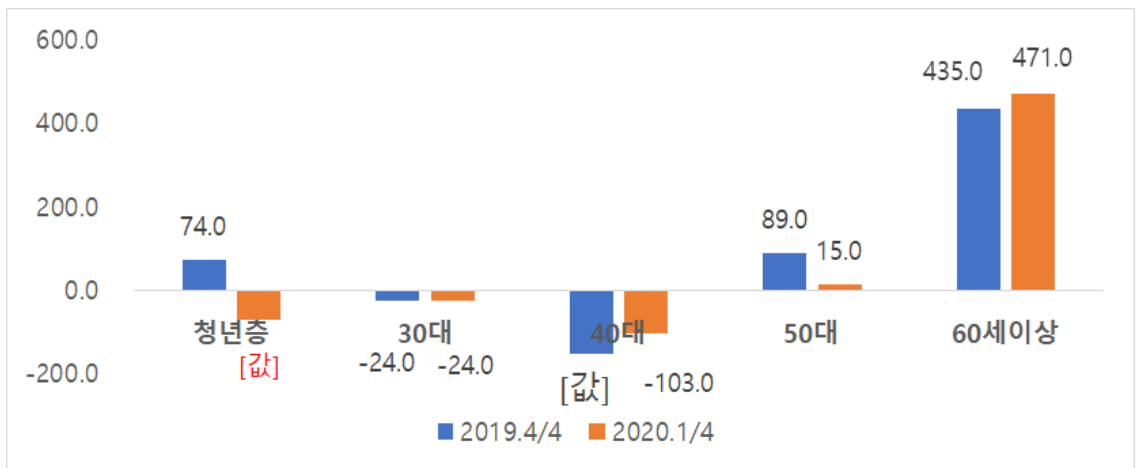
- (1) 현재까지는 주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개교회별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조직을 통하여 좀 더 효율적인 적극 지원이 필요함.
- 각 개교회에선 취약계층 돕는 것으로 알려짐 (실직자, 취약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
- (2) 이번 기회에 교회의 재정을 교회 밖, 이웃을 위해서 공간을 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구약시대 매 3년마다 구제를 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 있음.
- 교회의 공간도 풀어야 함, 정부 공간을 푸는 것만으로는 한계,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 이 부분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민간 NPO, NGO들과 연합하여 보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에서 교회의 역할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교회는 교인뿐만 아니라 NGO, NPO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교회도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할 것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재정의 상당부분을 교회 밖으로 쓰는 ‘**교회의 추경예산**’을 다시 짤 필요가 있음
- (3) 교회의 자발적 기부활동 독려 (Y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중에 절실히 필요치 않은 분들은 교회로 자발적 기부하여 가난한 이웃 돕자는 캠페인)
- (4)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정부조직과 연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교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의료보 건, 다양한 분야 봉사경험 풍부한 인적자원, 교통봉사, 행정업무 지원, 식사 지원 등)을 정부 활동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임.  
(예: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시 교회에서 기름제거에 봉사활동 지원을 한 좋은 선례가 있음.)
- (5) 이번 기회야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교회에 섬기는 사명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 What? How? When?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해야 할 때임.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한 반기독교 정서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위기에 교회가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음. **기실**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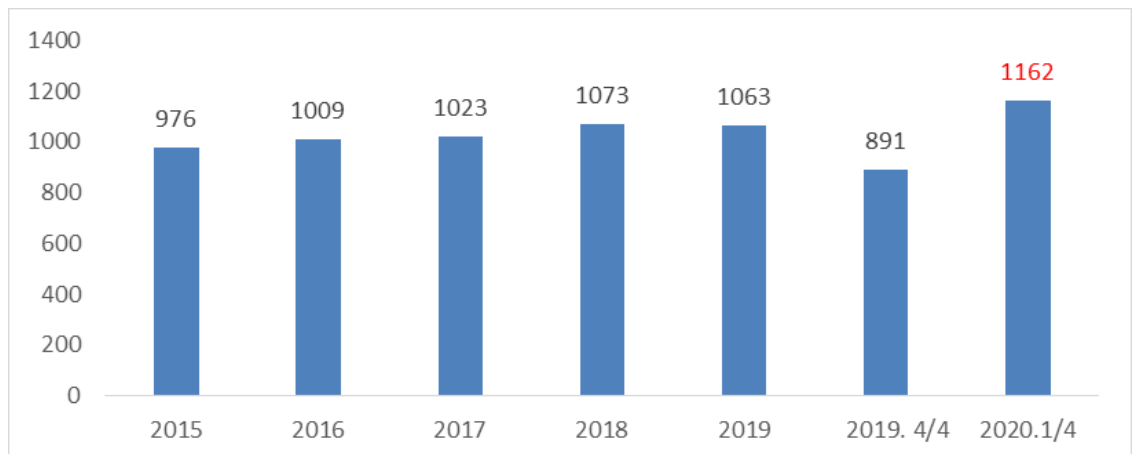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우리나라 고용률 (전체) 급감



[그림 2] 최근 연령별 취업자 증감 (천명, 전기대비)



[그림 3] 전체 실업자 추이 (천명, 전기대비)



#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최진봉(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예배설교학)

## I. 여는 말

코로나19는 한국교회에 ‘예배 없는 교회,’ 또는 ‘교회 없는 예배’라는 당혹스런 상황을 가져왔다. 좋은 삶, 준비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재난 상황 하에서 예배를 비롯한 교회들의 행습이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급전했다. 교회가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한때 이단시 되던 무교회주의자들이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통한 탈교회성을 주장하는 기술만능주의자들에게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이례적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교회의 현실이 되었다. 본인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등장한 몇 가지 현상들을 주목하고, 이후 예배와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II. 본 말

### 1. 코로나19가 만든 현상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만든 대표적 현상은 예배를 비롯한 공적 모임들의 ‘비대면화’이다.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신자들의 사회적 회합 자체를 원천적으로 경계하는 사회적 조치로서, 신자들의 회합과 교제가 존재양태인 교회에게 이례적이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도전들을 불러들였다.

#### 1) 주일성수 신앙의 급변화

코로나19는 주일성수를 상대적 가치로 바꾼다. ‘주일성수’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성별한다는 신앙의 절개를 표현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이다. 그러나 교회현장에서 주일성수는 개인의 신앙의 진위를 판단하거나, 때로는 성도들의 교회이탈을 막고 반사회성을 조성하는 도그마적 교리로 사용돼 그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 더불어 현대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주일성수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여전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지탱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는 주일성수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주일에 교회가 아닌 재택이나 다른 공간에서의 대체예배를 현실화시킴으로 “예배출석은 곧 교회출석이고, 예배에서 봉헌한다”라는 ‘예배와 교회,’ ‘예배와 봉헌’ 간의 필연적 공식을 깬다. 이는 교회의 신앙행습에 근본적인 변화들을 예상케 한다. 즉, 주일에 교회가지 않고 개인별 가정별로 예배하는 신자들이 이전보다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녹화영상을 통한 예배시청은 교회력의 기본 주기인 ‘주일’에 대한 상대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럴 경우, 기존의 교인수와 예배공간의 비례공식도 깨질 수 있다. 한마디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체질의 교회가 불쑥 나타날 수도 있다.

#### 2) 건물공간으로서의 ‘교회’의 재고

코로나19 상황은 건물로서의 ‘교회’공간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깬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인터넷과 SNS

를 통해 공간과 사물을 뛰어넘어 다중이 소통하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 사회이다(이주연). 코로나 19는 그 사회의 주변부에 있던 예배를 초연결 세계로 끌어들었다. 비대면예배의 상황에서 교회들은 전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예배의 진정성을 미디어를 통한 간접연결성(indirect connectivity)과 내적연결망(inner network)에 두고, 교회됨을 물리적 공간에서의 모임이 아닌, 온라인의 가상공간에서의 동시간대의 연결성에서 찾는다. 한 마디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비대면예배 상황에서 교회는 예배촬영과 녹화를 위한 스튜디오였지, 온 신자들이 함께 있는 예배당이 아니었다. 코로나19는 임시적이지만 절대공간이었던 예배공간을 재편했다.

### 3) 온라인 성찬

코로나19는 온라인이나 영상예배를 포함해 승차예배인 드라이브인(Drive-in) 예배들을 등장시켰다. 게다가 일부 개신교회들은 온라인 성찬을 시행했다. 온라인 성찬이란, 비대면예배에서 신자와 목회자 간 비접촉 방식으로 성찬의 빵과 잔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몇 교회들은 주일 전날 가정별로 성찬 빵과 포도즙을 배달하여, 신자들로 주일예배에 맞춰 배달받은 성찬 빵과 잔을 차리도록 하고, 영상 속 집례자의 인도에 따라 그들의 빵과 잔을 먹도록 했다. 이후, 온라인 결혼식과 장례식에 견주어 온라인 성례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가톨릭이나 성공회 교회 같은 성사중심의 교회들의 대응은 최근 개신교회들의 온라인 성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톨릭교회는 1960년대 제2바티칸공의회에서 라디오와 TV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디어를 통한 미사는 영성체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자에게 제한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를 '신영성체'라 부른다. 신(神)영성체(spiritual communion)란, 영적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통상적인 영성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자가 빵과 잔을 받지 못할 때, 그가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과 사랑에 의지해 성체를 받고자 하는 의향을 갖고 기도로 대신할 경우, 통상적 영성체의 참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가톨릭과 성공회 교회의 신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주일미사를 드린다. 하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신자들이 신영성체의 방식으로 사제들의 영성체의 영상을 보면서 기도로 참여하는 방식이며, 다른 방식은 온라인 사용을 못할 경우, 신자들이 기도서를 가지고 가정에서 영성체 없는 간편 기도예식으로 드리는 방식이다. 한편, 개신교회는 말씀중심의 교회로서 성찬이 아닌 설교가 예배의 절대요소이기에 매주 설교를 행하는 반면, 성찬은 교회들의 선호도에 따라 평균 1년에 2-4회 정도 시행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사중심의 교회들이 신자들의 성찬을 유보한 반면, 성찬중심이 아닌 개신교회 쪽에서 온라인성찬으로 성찬을 강행한다는 것은 우스운 역설이다.

비대면예배 상황에서 온라인성찬은 성찬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성찬감성주의가 낳은 현상으로 주의를 요한다. 성찬은 분리된 하나의 빵조각과 홀로 있는 신자 한명 간의 일이 아니며, 배달된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 되는 것이 성찬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한 덩어리의 빵과 한 몸으로 있는 신자 공동체 간에 행해지는 일로서, '성찬감사기도'에서부터 '성찬 후 기도'에 이르기까지 현장에 모인 신자들이 물리적인 한 덩어리의 빵과 한 병의 음료를 나누어 먹음으로서 실제적인 공동체로 엮어지는 사건이다. 2천년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빵과 잔의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히 분별하여 먹고 마셨다. 혹자는 현 온라인성찬이 성찬의 믿음으로 포장한 교회의 무질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라는 이례적 상황 하에서의 교회의 선부르고 임기응변적 대응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 예배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부추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개신교회는 성찬을 어느 때고 시행-유보할 수 있는 교리적 토대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코로나19 이후의 전망

### 1) 교회됨의 본래성의 지속

비대면예배가 지속되면서 지인의 신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됨으로 발생한 정서 심리적 불안증상이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불러들인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한 가지는 현장 대면예배에 대한 강한 향수와 욕구의 환기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하에서 많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새벽과 주일에 교회를 찾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경험되어 왔는지를 주목하게 한다. 교회의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로 발생되고 존속한다는 경험과 고백에 서있다 (Augustine, Luther, Calvin). 20세기 교부인 칼 바르트(K. Barth)는 성도들의 회합하는 행위 없이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진면목과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상호내주하심(perichoresis) 안에서 교제하는 모임으로, 교회가 “삼위일체적 공동체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리가 아닌, 교회의 존재양식에 대한 고백이며, 단순한 제도적 조직적 관계 이상의 ‘실제적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교회는 2천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전쟁과 박해, 흑사병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 교회에서의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들은 흩어져 개별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신자들의 구체적인 회합과 교제로서의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큰 생명력으로 세상 가운데 일으키셨다(Bonhoeffer).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우리는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방식에 있어 비상시성(이차성)을 상시성(일차성)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비대면 온라인이나 원격예배는 예배를 현장적이며 전인격적인 생생한 사건보다는 가상공간을 통해 예배내용을 정보로 전달, 공유하는 정보소비의 행위에 가깝게 한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취하는 이차적이며 임시적인 방편들이 사태 이후, 교회됨의 고유한 본래성을 침해하거나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변화 가능한 양태들

교회의 본래적이며 고유한 속성과 그것들 담아내는 공동체적 현장예배와 신자들의 교제, 성찬의 요소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부분들이라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교회 내의 변화의 흐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회 선호도의 역전

코로나19 이후, 교회들은 마련된 시스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다채로운 내용의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특별히 교회학교와 성경공부, 양육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목회사역 현장은 보다 간소하면서도 즉각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획기적인 방식들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서비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서비스의 양적 차원에서 교회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교회 간, 목회자 간 콘텐츠의 질적 차이가 기존의 교회의 선호도를 바꿀 수도 있다. 교회들이 온라인 미디어 사역의 증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제한된 목회인력 대비 각급 부서의 미디어제작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젊은 목회자들의 사역부담이 가중되고, 사역조건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목회역량에 미디어영상 제작관련 기술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 교회의 고유한 대인대면 사역이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

### 둘째, 외형적 교회주의의 쇠락

코로나19 이후, 본래성에 대한 지향성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뉴노멀(new normal)의 저성장 시대는 외형의 크기보다는 내적관계성과 친밀성이 가능한 작음의 가치가 커진다. 많은 개신교회의 신자들이 교회의 외형적 교회주의에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다. 여기에 코로나19는 교회건물과 예배공간의 가치가 상대적임을 더욱 확연히 해주었다. 또한 사람들은 앞으로 올 수 있는 재난이나 위기의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가볍고 작은 체질의 교회를 선호할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현장대면예배와 온라인예배가 병행될 시, 온라인예배의 이용자는 전보다 증가할 것이고, 목회사역에서도 대면접촉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모임이 증가함으로써 교회 내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교회의 재정수입의 감소와도 직결된다. 분명 헌금에 대한 신자들의 낮은 의무감 역시 코로나19 이후 더욱 현저해 질 것이다.

### 셋째, 재난 시 예배와 모임을 위한 교단별 통일된 지침 마련

개신교회들은 일치되고 통일된 형식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교회 간 예배의 상이함과 다양성은 개신교회의 장점이지만, 개교회주의를 심화시키는 중심요인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신교회들은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비대면예배의 시기와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었다. 이런 상황은 사회만이 아닌, 신자들과 목회자들도 불안케 한다. 반면, 중앙감독체제인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교회들은 개신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일치된 대응으로 안정되고 질서 있게 예배를 진행했다. 따라서 개신교회의 각급 교단이나 교회들은 재난 시 질서 있는 대응과 안정된 예배시행을 위해 통일된 예배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II. 맺는 말

코로나19 이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설왕설래이다. 그러나 신자의 회합과 교제로서의 교회는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방식이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다. 동시에 코로나19는 교회를 본격적으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초연결성의 세계로 끌어들이었으므로, 이후 교회는 목회의 사역들에서 보다 다원적이고 초공간적인 접촉을 이전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형성에 의존하는 교회주의의 거품은 빠질 것이다. 고신

# 재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

조주희(성암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 1. 교회를 위한 신학의 중요성

### 1) 신학적 미성숙이 가져온 혼란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는 한국 교회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회 앞에 기독교는 분열적 종교로 비쳐졌을 것이다.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이해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첫째는 전염병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보는 관점과 그렇지 않은 관점이 충돌했다. 두 번째로는 모이는 예배를 중단해 줄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이 부분에서도 찬반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단순히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하여 정죄를 서슴지 않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모습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음은 물론 교회들 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현상들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뒤에 신학이 있다. 여러 주장들이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가운데 그 주장들의 이면을 보면 그 뒤에 그런 주장을 하게 하는 신학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혼란스러운 양상은 신학의 혼란스러운 혼재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욱 혼란을 부추기는 신학적 현상이 있었다. 그것은 신학과 정치의 어설픈 결합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여과 없이 신학화했고 그 신학을 너무 쉽게 믿음의 체계로 받아들여 신학과 결합된 정치적 주장을 진리처럼 여기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번 전염병 상황에서 신학의 혼란스러운 병립과 신학의 정치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의 신념을 쉽게 동일시하는 현상이 여러모로 당황스러운 상황의 원인이 되었다.

### 2) 신학적 성숙을 위한 과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평신도 신학을 일으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변증이다. 이번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대한민국의 사회 앞에 기독교를 설득력 있게 변증할 수 있는 인물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 서로의 미숙을 지적하는 소리도 적지 않고,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제시와 설득력 있는 여러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혁적인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 안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 주장이나 기독교적 변증이 교회 안의 담론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와 연결된 담론이 될 수 있을 때 교회는 변화될 수 있고 교회의 존재감이 사회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신학함의 범위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영역에서 확장되어 평신도들의 신학적 참여의 폭을 확장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의 변증은 삶과 만나는 자리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독교 변증은 사회적 현상을 기독교적으로 다루는 영역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회라는 그릇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삶 자체가 기독교 변증의 자리이다.

이제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을 이런 견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그룹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평신도들은 소수의 인텔리 평신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공동체의 일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신학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교단 안에 갇힌 신학, 목회자나 신학자의 주장에 갇힌 신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기간에 그 교회는 한 주는 온라인 예배를 하고 나머지 한 주는 영상 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에 대한 이해가 극명하게 나뉘었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전언이다.

평신도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 안에 신학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교회 없는 신학, 신학 없는 목회, 신학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큰 틀의 대범한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반드시 평신도의 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전염병 사태는 사회가 교회에게 수많은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는 신학자나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하는 신학의 장을 여는 것을 일차적 답변으로 준비해야 하는 과제로 남겼다.

## 2.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 대한 교회의 대처

### 1) 소통 체계 가동

대부분의 교회가 전염병 상황에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우의 소통은 신속성과 확실성의 두 면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건강한 소통 구조와 소통의 연습이 없었다면 소통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교회 공동체 또한 매순간마다 적절한 결정을 위한 소통을 필요로 했다. 장로교의 특성상 당회원들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만나는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SNS를 통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적절하고도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단어 사용과 자신의 의견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의견이 분산되지 않고 조정되도록 협력하는 관점이 모두 필요했다. 당회의 결정이 중요하긴 하나 그 결정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의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일반 성도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함으로 이 의사들이 당회의 결정과정에 반영 되도록 애를 썼다.

이런 노력들은 교회 공동체가 전염병 상황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신앙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온라인 예배와 영상을 통한 교육에 대한 교우들의 적극성은 교회 공동체에게 힘이 되었다. 또한 이런 노력들을 지역 사회에 알리고 구청과 계속 소통함으로 지역 사회에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와 교회가 지역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교회공동체의 신학과 지역 사회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지역과의 관계는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마다 평시에도 의사 결정과정에서 결론을 끌어내려는 목적적 소통보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소통의 과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통 구조와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Doing'의 교회에서 'Being'의 교회로

교회는 사명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진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교회공동체는 종종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명 아래 각각의 신학적 이해에 따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한다. 전도와 봉사활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한국 교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국 사회는 복지와 문화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국가 복지 시대에 접어 들어 있는 상태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에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일원인가?’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선교적 대상으로 이해한다면 ‘무엇을 하겠다(Doing)’는 입장보다는 ‘함께 하겠다(Being)’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점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다. 그런데 교회가 위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일반 사회를 위한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전염병 상황에서 교회가 지역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입장보다는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가 이끌고 있는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협력하게 되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업의 필요를 물었고 요구에 전적으로 협력했다. 따라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사역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하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 앞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 교회는 이번 전염병 상황에서 이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며 함께 했다.

### 3. 교회 공동체 보호를 위한 조치들

#### 1) 신앙을 위한 노력들

교회 공동체는 지역 사회의 일원이기 전에 신앙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공동체의 각각의 교인들의 신앙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이는 예배를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적 좌절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목회자는 교회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본 교회는 우선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속한 교단의 결정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배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져다 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예를 들면 온라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를 그대로 보여주기 보다는 방식과 내용을 통해 모이는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편성했다.

이런 방법들을 지역에서 아직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진 못한 교회들에게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알려 줌으로 지역 사회의 교회들을 섬기며 기술적인 부분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소통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소개함으로 지역의 교회들과의 유대를 강화했다.

이제는 교육의 상당 부분도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구역 편성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체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교회공동체 자체를 오프라인 개념과 온라인 개념을 적용시켜 목회하고 운영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 2) 앞으로의 전망

포스트 코로나에서 교회 공동체는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강조한 바 있는 신학 운동이다. 둘째는 교회 조직과 체계의 유연성과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맞는 여러 콘텐츠 개발이다. 그동안의 교회 조직과 콘텐츠가 가진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매뉴얼 작업이다. 이것은 교회적 차원뿐 만 아니라 보다 큰 범위인 교

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개신교 전체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구조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지역 사회안의 지역 교회들의 소통 운동이다. 신학적인 대화와 사회적 대응을 위한 여러 차원의 교육과 토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섯째는 지역 사회의 다른 단체, 조직, 행정기관 등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이다. 교회 공동체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담론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공동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는 교회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게 했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답을 내놓으려 몸부림칠 때 한국 교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변화될 것이다.<sup>41)</sup>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지난 30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2020년 기윤실 주요운동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합니다. 2020년에는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를 표어로 정하여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바른가치운동, ▲청년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약자와 함께하며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 후원안내

- 후원문의 : 02-794-6200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mailto:cemk@hanmail.net) / 트위터, 페이스북: @giyunsil / [www.cemk.org](http://www.cemk.org)



기윤실  
홍보영상